

경북도,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363억 확보... 3년 연속 전국 최다

내년부터 국비 포함 801억 투입
지역 청년 3500명에 일자리 제공
비대면·디지털분야 일자리 창출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서 국비 363억원을 확보해 3년 연속 전국 최다 국비 확보 성과를 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 49개(신규 23, 계속 26개) 사업이 선정돼 전체예산 2327억원 중 363억원(15.6%)을 확보했다.

지난해 294억원(14.3%), 올해 338억원(14.4%)에 이어 민선7기 시작 이래 3년 연속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한 것이다.

도는 내년에 국비 363억원을 포함한 801억원을 투입해 3500여명의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국고보조금 지원방식과 달리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일자리 발굴 모델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지역 코로나 대응형 등 4개 유형별로 진행된다.

경북도는 특히 내년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해 1600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은 ▲재택근무 등 경북형 비대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00명,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

리사업 220명 ▲디지털 혁신기업 청년일자리 100명, 청년기업 빅데이터 구축 일자리사업 100명, 디지털교역 청년일자리사업 50명 등이다.

도는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763억원(국비 338억원)을 투입해 청년 31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성과는 지역 청년과 기업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인력충원을 위한 단비가 됐다”면서 “이 사업이 구직 청년과 채용기업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수요도 많은 만큼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안동시 “호반 나들이길 함께 걸어요”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와이드뉴스가 주관하는 ‘2020 안동 호반 나들이길 걷기’ 행사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월영공원 특설무대에서 호반나들이길 일원에서 개최된다. 2013년 자연친화적인 호반나들이길 준공을 기념하고자 시작한 호반나들이길 걷기 행사가 어느새 7회째를 맞이하며 관광객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광주시, AI 비즈니스 순풍... 48·49번째 기업 업무협약

성도·파인트리시스템 합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협력



광주시 인공지능 기업 주성도 주파인트리시스템 업무협약

광주광역시시는 4일 인공지능(AI) 유치기업인 성도, 파인트리시스템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48·49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업별 법인설립 및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도는 검사장비 S/W 및 산업안전 보호구 제조 전문기업으로, AI와 빅데이터를 융합한 탄소강판 AI표면검사기와 컨베이어 고장예측시스템을 차기 아이টে이프로 선정해 연구소를 필두로 광주에서 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인트리시스템은 정보보안 솔루션 및 AI 기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내시경 시술내용의 빅데이터화 및 AI 요소기술 적용을 통해 취약

내부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의 가이드 제공을 위한 실시간 수면 내시경 진료공유 시스템을 개발해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업은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법인 및 지역사무소를 조기 설립해 산업안전 및 헬스케어 분야 인재육성과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AI 관련 분야 생

태계 조성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기술·정책 자문 ▲AI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및 지역사무소(연구소) 신설 추진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AI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송봉주 성도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안전보호 관련

기업의 성실함을 인정받아왔다”며 “연구소 조기 설립으로 광주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기 파인트리시스템 대표이사는 “인공지능 분야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 가운데 헬스케어분야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역 법인 설립 및 인재채용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들이 창업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AI 생태계 기반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구조 변화에 선도적인 대응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울진군 통합신공항 연계사업 발굴

경북 울진군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맞춰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에 나섰다.

울진군은 지난 3일 ‘통합신공항 연계 전략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보고회를 갖고, 관광지 활성화 대책 및 울진비행장의 활용방안 등을 경북도청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울진군은 열악한 조건을 가진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공항 접근성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각종 상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전찬걸 군수(사진)는 “군민의 공방이용의 편의를 위해서는 36번 국도의 4차선 확장, 동서횡단 철도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경북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진(경북)=김기열 기자 gold6830112@

경북 5개 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024년까지 1492억 투자

정부의 올해 2차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경북의 경주시, 구미시, 청송군, 성주군, 예천군 등 5개 시군이 추가 선정돼 국비 358억원을 확보했다.

사업별 사전검증과 발표평가 등을 거쳐 전국 16개 시도 47곳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경북에서는 경주시 등 5개 시군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

경주시는 황오동 일대(16만5000㎡)에 공공상생점포, 복합문화센터, 나들이길 조성사업 등을 진행해 상업 및 문화 거점을 조성한다.

구미시는 원평동 일대(16만578㎡)에 지역주민의 건강예방 기반을 구축하고 금리단 골목상권 활성화, 경관특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청송군은 진보면 진안리 일원(15만7127㎡)에 객주보부상문화, 진보향교 등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상권을 활성화하고 객주 안심마을 조성 등으로 주거 기반시설을 개선한다.

성주군은 성주읍 성산리 일원(12만㎡)에 어울림복합센터를 건립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문화마당 등 생활기초시설을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예천군은 예천읍 노하, 동본, 남본리 일대(16만3380㎡)에 한우, 곤충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심보호센터, 어울림센터 등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이들 사업지에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492억원(국비 358억, 지방비 239억, 부처연계등 895억원)이 투자돼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롯데제과 스위트홈 8호점 제막식(좌측 네번째부터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사무총장, 롯데제과 민명기 대표이사, 우측 세번째부터 신안군 박우량 군수,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장 /롯데제과

롯데제과, 신안 임자도에 스위트홈 건립

섬 지역 스위트홈 최초 건립

롯데제과가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지역아동센터 ‘롯데제과 스위트홈(Sweet Home)’ 8호점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스위트홈 8호점’은 건물 200㎡(60.39평), 대지 720㎡(217.8평) 규모로,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 위치해

있다. 섬 지역에 스위트홈을 건립한 것은 이번 임자도가 처음이다.

‘롯데제과 스위트홈’은 롯데제과와 국제구호개발NGO세이브더칠드런의 협업으로 추진되며, 건립은 빼빼로 수익금으로 이뤄지는 사회공헌활동이다. 빼빼로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자는 취지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선정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제24차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산지역 3곳이 ‘2020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곳은 ▲연제구 연산8동(우리동네살리기) ▲해운대구 반여2·3동(일반근린형) ▲북구 덕천동(일반근린형)이다.

이로써 부산시의 뉴딜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 4곳부터 이번엔 선정된 3곳까지 총 21곳으로, 지난해까지 1737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811억원(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 민간사업 등 3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허희원 기자 bsmorning@